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브라질 - 변화하는 사회와 새로운 과제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박원복, 양은미 (옮긴이)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46056909

422쪽 | 152*225 mm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다섯 번째는 브라질이다. 대국 브라질에 걸맞은 정보와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분야 현안과 배경해결점을 모색한 연구를 선별해 『누에바 소시에다드』 201년과 2013년 포르투갈어 특집판과 상파울루 대학 발간 학술지에 실린 논문 등을 번역했고 국내 브라질 관련 논문 몇 편을 가려 실었다.

룰라 재임기 브라질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룰라의 뒤를 이은 지우마 호우세피 정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집권 초기에 전임 대통령 룰라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환경에도 직면해 있다. 이 책은 브라질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가를 담았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의 형성 - 교환과 혼종 (상, 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은이)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46056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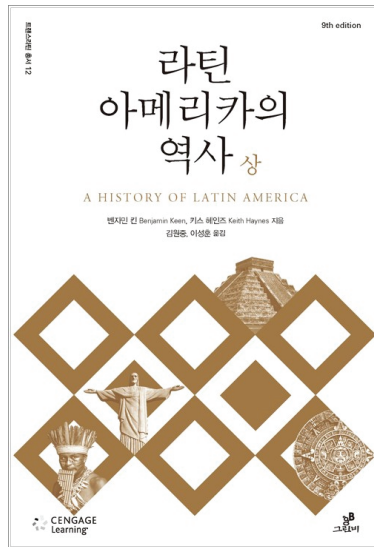
440쪽 | 223*152mm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사업에 선정되어 21세기 인류 역사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

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이미 1단계 연구결과물로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 변화와 갈등』 (상, 하)을 출간한 바 있고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은 그 2단계 연구결과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대항해게모니운동과 다양한 이념적, 정치적 기획들이 표출되는 현재 모습의 원인이 지난 30~40년간의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아메리카 발견, 정복 후 500년간의 근대성의 위기가 중층적·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이 1단계 연구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2단계 연구인 이 책에서는 아메리카 발견·정복 후 500년간의 근대성이 곧 식민성의 다른 얼굴이며,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립과 성장 진화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화석화된 역사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통해 21세기 인류에게 트랜스모더니티의 가능성을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 하)

벤자민 킨, 키스 헤인즈 (지은이) | 김원중, 이성훈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76825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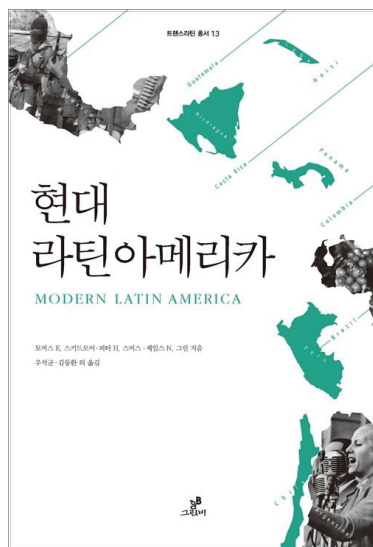
692쪽 | 220*150mm

‘트랜스라틴 총서’ 12권. 1980년 『간략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Latin America)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된 이래, 오늘날까지 30여 년 동

안 아홉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읽히고 있는 권위 있는 라틴아메리카 역사 입문서이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역사 전체를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구성과 평이한 문체로 쓰여 있어 복잡하고 광범위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각 장의 초입에 제시되고 있는 각 장의 핵심문제와 간략한 연표, 그리고 풍부한 도판과 지도 자료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쓰였다는 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벤자민 킨과 키스 헤인즈가 이 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한 가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악화,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종속의 심화만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좌파 정권들의 집권(분홍 물결)과 쿠바의 사회주의적 모델의 가능성과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현대 라틴아메리카

토머스 E. 스킨모어, 피커 H. 스미스, 제임스 N. 그린 (지은이) | 이성형, 우석균, 김기현, 황보영조, 박구병, 정이나, 김동환, 이준희, 최해성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76825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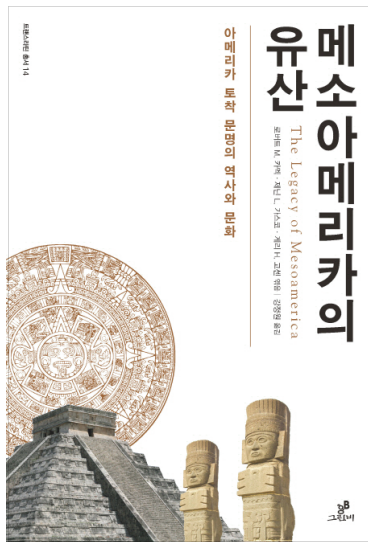
768쪽 | 220*150mm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시각과 나라별, 분야별 사례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시대를 개괄한 후, 서유럽으로부터의 독립 과정과 경제 성장 과정,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그리고 현재까지의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각 국가별로, 소지역별로 압축적으로 개괄한다.

마치 지도를 훑어 내려오듯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그 각각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 갔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각 국가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 예술 분야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본문 사이마다 적절한 통계 자료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고, 사회상에 관한 국가별 비교 사례 등을 제시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최근의 변화상들까지 홈페이지 (www.oup.com/us/skidmore)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이 책은 초판 출간 이래 30년간 영미권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 온 바와 같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손꼽힐 만한 라틴아메리카 입문서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메소아메리카의 유산 - 아메리카 토착 문명의 역사와 문화

로버트 M. 카맥, 제닌 L. 가스코, 게리 H. 고센 (지은이) | 강정원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76825346

992쪽 | 220*150mm

메소아메리카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일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북부)를 포괄하는 광범

위한 지역으로 올메카, 테오티우아칸, 마야, 사포테카, 아스테카 등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문화 공간이다.

『메소아메리카의 유산: 아메리카 토착 문명의 역사와 문화』는 메소아메리카 토착민들의 삶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메소아메리카의 변동을 서술한다. 로버트 M. 카맥, 제닌 L. 가스코, 게리 H. 고센을 필두로 열세 명의 북미 고고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다양한 연구방법론, 풍부한 사료와 고고학적 자료 분석, 심층적인 문헌 조사, 문화기술지 사례 분석을 통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메소아메리카의 복합적인 사회 구성과 문화적 전통을 연구한다.

문명사의 특정 단계(기원이나 스페인 정복 이전 등)에 머무르거나 부분적인 측면들(예술, 건축, 신화 등)에 한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메소아메리카 연구와는 달리, 이 책은 개별적으로 묘사되던 여러 문명을 메소아메리카라는 개념으로 묶어, 문명이 특정 시기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까지 상징적·물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개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